

## 1週日 養蠶의 技術體系 確立

李 相 豊

農村振興廳 蠶業試驗場

우리나라 蠶絲業이 海外 絹業國들과의 競爭競合에서 계속 이겨 남기 위하여는 이들이 할 수 없는 革新技術을 導入한 低cost 養蠶 技術이 이루어져야 하고 多様な 生絲 絹製品을 開發供給되어야 한다.

革新技術의 導入, 低cost 養蠶의 實現으로 養蠶所得의 増配는 生産性的 向上에 있는 바 이에 年間 多回育에 의한 施設의 擴大없이 養蠶 規模를 키우는데 있다. 이는 作業의 省力化, 單純化와 함께 養蠶農家の 短期的 重點 飼育에 그치는 「1週日 養蠶」의 導入만이 最上の 길로 알려져 世界 最高 養蠶技術을 걷고 있는 日本이 推進하고 있다.

이 「1週日 養蠶」은 1~4齡 人工飼料 共同育, 5齡 甁 앞 個別 農家育으로서 이를 위하여는 低코스트 飼料開發을 위하여 우선 廣食性 누에 品種이 開發되어야 하고, 이를 利用하는 超低廉 飼料開發이 이루어져야 한다.

1~4齡 人工飼料 共同育의 施設은 1~2齡 共同育의 7~8배나 넓은 面積이 要求되므로 이 施設問題와 그

運營上의 問題點이 體系化되어져야 한다.

5齡 農家育은 作業能率 및 作業強度의 緩和를 위하여 大型 및 超大型 經營일수록 5齡 專用 飼育機器 開發의 導入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에 是 效率 増大를 위하여 年間 8回 以上の 多回育 導入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多回育을 위하여는 高能率 安定 누에올리기 技術이 뒤따라야 할 問題가 擡頭된다.

一連된 이상의 技術體系 定立을 早速히 達成하기 위하여 본 「1週日 養蠶의 技術 體系 確立」이란 主題 下에

第 1副題로 “廣食性 누에 品種 育成”, 第 2副題로 “1~4齡用 低廉 人工飼料 開發 및 飼育技術 開發”과 第 3副題로 “1週日 養蠶을 利用한 多回育 技術開發 (育蠶中心)” 등 3個 副課題로 하는 Group Study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副題에서 摘示되는 研究課題나 改善點이 하루빨리 體系化 定立되어져서 우리나라 養蠶의 새 活路가 開拓되어져야 할 것이다.